

지역 매 아 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김제 당월 · 울치지구 69억원 확보

김제시는 2020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월지구와 울치지구 2개 사업이 선정되어 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택이나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당월지구는 25억원을 투입하여 금구면 월전리 일원 당월천 1.5km와 울치지구는 44억원을 투입하여 금구면 화율리 일원 울치천 1.6km에 대한 축제와 하상을 정비하고 낙차보 등을 설치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금구면 월전리와 금산면 화율리 주민 109세대, 농경지 30.6ha에 대한 침수피해 걱정이 해소되어 주민 삶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생업 전선에 매진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나갈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 핵심 안건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지적·개선을 요구하고, 질타와 수용, 소통을 통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군정 수행을 요구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최등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는, 궁극적으로 군민을 섬기고 지역에 봉사하는 같은 길을 가는 동지로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자세로 대해야 하고, 모든 공직자는 군민을 두려워하는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짐 없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일어난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완주군의회를 비롯해 완주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공직자의 태도를 지적함과 함께 더 성숙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 발언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탄력

농식품부 6억원 확보... 소양면에 조기 준공 노력

완주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국비를 확보, 소양면 임대사업소 신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구입비의 과다소요와 발농업 농기계 이용을 미흡을 해결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사용일수가 제한적인 발농업용 농기계와 작업기를 적기에 공급해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고산면(본소), 삼례읍(서부), 구이면(남부)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양면, 용진읍 일부 농가들이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농기계 임대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완주군은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소양면(동부)에 임대사업소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해왔다.

박성일 군수는 “국비사업 확보로 소양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조기에 준공해 소양면 철쭉, 발작물 채소 등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손경감 효과와 작기영농 실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토과아 완주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성료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참여

제18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9일 지평선의 고장이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Half(21.0975km), 10km, 10km단 체전(4인 1조), 5km, Half/10km 마니아 종목으로 구성되어 약 4200여명이 참여했다.

명실상부 전북도를 대표하는 달린 이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다단체상에는 ‘현대자동차’ 마라톤 동호인들이 Half,

10km종목 66명이 참가해 수상했고, 최고령상으로는 하프코스 참가자 남자 ‘유희식’, 여자 ‘김영순’님이 수상해 달림이들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안내책자, 배번호, 완주메달, 기록칩 및 모바일 기록증(5km 제외)이 제공되었으며, Half와 10km 참가자들에게는 지평선 햄살(10kg), 5km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몸쳐야 찬다’ 멤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참여해 참

가자들과 함께 10km를 달리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제시체육회(회장 박준배)는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한껏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김제시를 찾아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없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며, 차기 대회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육아축제로서 비누 체험부스 운영

‘뽀뽀뽀 비누 클레이’ 흥미유발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자원 교수)가 전북도 육아축제로 참여

해 완주군을 일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5회 전라북도 행복 더함 나눔 육아축제에서 ‘뽀뽀뽀 비누



제5회 전라북도 행복 더함 나눔 육아축제에서 ‘뽀뽀뽀 비누 클레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클레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체험부스를 통해 축제에 참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손을 씻어야 할 때’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알밥과 당근 모양의 비누클레이를 만들어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손 씻기 교육과 클레이를 접목한 촉감놀이로 흥미를 유발하고, 손을 사용해 소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줘 보호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즐거웠던 체험활동 중 비누 만들기를 꼽을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정재운 먹거리정책과장은 “아이들의 위생관념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11월에 개소했으며 현재 97개소의 어린이 약 3700여명에게 연례별 영양 식단 제공, 위생·영양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허전 김제부시장 취임 100일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 힘보태

지난 8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허전 김제시장은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김제시의 숨은 매력과 미래 발전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박준배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등고자비(登高自卑)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지난 3개월간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등 쟁점사항을 쟁겼다.

아울러 태풍대비 비상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기업방문 애로사항 청취, 국가에 산확보를 위한 상급기관 수시방문 등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손수 꼼꼼히 챙겨 대통령 직속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19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김제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개최된 대한민국 5대 글로벌 육성 축제인 제21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세계축제협회(IFEA)가 인정한 ‘세계 축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허전 부시장은 “여러 현안사업을 챙기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보람과 성과가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공직에 임하는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량면 임형규 노인회장, 노인의 날 모범노인 도지사 표창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영하)은 8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제23회 전라북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부량면 임형규 노인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두봉 노인회전북연합회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과 지역 어르신 및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임형규 회장은 수년간 부량면 노인회 회장직을 맡아 수행해 오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였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한 바를 인정받았다.

임형규 회장은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며 “이렇게 봉사활동에 나서으로써 사회공공체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영하 부량면장은 “고령화 추세 속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이 더 많이 필요해진 시대다. 사회를 이끌어온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 사회의 스승으로 예우하는 것이 도리”라며 “수상 어르신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의 날(10.2)’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1)’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고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이 영웅입니다

!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의 악하지 못해도 가능하며,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강행력·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